

# 金通精의 활동과 문학적 상상력

김 영 화\*

〈차 례〉

1. 머 리 말
2. 역사에 나타난 김통정
3. 전설에 나타난 김통정
4. 한국소설에 나타난 김통정
5. 일본소설에 나타난 김통정
6. 맺 음 말

## 1. 머 리 말

제주도의 전설 가운데는 실제로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김통정, 진좌수, 이재수 등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전설 속의 인물이기도 하다. 김통정은 고려시대 三別抄의 將帥로 제주도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죽은 사람이고, 진좌수는 조선 영조 때 사람으로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에 살았던 사람으로 醫術이 뛰어난 인물이며,<sup>1)</sup> 이재수는 20세기초에 있었던 民亂의 주동인물 가운데 하나다.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인 김통정에 대한 전설이 제주도에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다. 그리고 김통정이 관여했던 삼별초의 활동을 다룬 소설들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濟州說話集成(1)』(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22쪽.

나왔다. 그만큼 김통정과 삼별초의 활동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통정과 김통정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한 전설들이나 소설들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서로 다른 문학 작품을 창조했다. 이것은 흥미가 있는 일이다.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작가의 상상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전설은 역사를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이야기하는 전승자들의 상상적인 허구가 첨가된다. 따라서 전설은 역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전승자들의 상상세계가 첨가된 독특한 장르다. 역사소설도 마찬가지다. 역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지만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이야기가 창조된다. 역사의 기록을 중시하면서도 작가의 상상력에 더 많이 의존한 것이다. 전설이든 역사소설이든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려면 전승자들이나 작가의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만을 알고 싶다면 역사책을 읽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설이나 소설을 읽을 필요가 없다. 적어도 독자들이 전설을 듣거나(읽거나) 역사소설을 읽는 까닭은 전승자와 작가의 역사에 대한 해석과 상상세계에 대한 흥미에서 비롯된다.

이 글은 김통정의 활동이 전설과 소설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피고, 전설과 소설에 드러난 상상세계의 차이를 살펴보려는 데 있다.

## 2. 歷史에 나타난 金通精

비교적 정리된 김통정과 그의 활동에 대한 역사의 기록들은 다음과 같다.

(A) 三別抄의 裴仲孫 등은 부하 군졸을 이끌고 江華를 봉쇄한 후 蒙古 侵略者와 이와 결탁한 開京 정부에 대하여 反旗를 들었다. 그들은 王族 承化候 溫을 새로 王으로 추대하고 官府를 설치하는 등 開京의 정부를 부정하는 反蒙 政權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開京에 가까운 江華에서 오래 버티기 어려움을 느낀 三別抄軍은 財物과 島民을 이끌고 全羅道 珍島로 내려갔다.(중략) 1270년 8월 珍島에 入據한 三別抄軍은 龍藏城을 쌓고 宮殿을 營造하여 하나의 都城을 이루었다. 그들은 檄文을 내어 국민들의 抗蒙意識을 고무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하여 珍島에 모여들었고 육지에서의 抗蒙 투쟁도 격화되었다. 三別抄의 세력은 매우 왕성하여 南海·巨濟·彰善·濟州 등을 비롯한 南海岸의 여러 섬을 장악하고, 長興·合浦(馬山)·金州(金海)·東萊 등 沿岸의 요지는 물론 全州·錦城(羅州)에까지 進攻하고 특히 錦城에서는 政府軍과 격전까지 벌였다. 珍島의 三別抄軍은 특히 全羅道 지방과 開京과의 해상 교통을 방해하여 租稅 米의 수송에 큰 타격을 주었다.

三別抄軍의 抗戰은 1271년(元宗 12년) 5월 蒙古·高麗政府의 연합군에 의하여 진도가 함락되고 그 중심인물의 대부분을 잃게 됨으로써 그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그 餘衆은 김통정의 지휘 아래 濟州島에 근거하여 그대로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물자의 보급을 얻지 못하고 蒙古軍이 우세한 火器를 당해내지 못하여 1273년(元宗 14년) 드디어 濟州島가 함락당하고 말았다.<sup>2)</sup>

(B) 金通精(?~1273: 원종 14), 고려시대의 반장(叛將). 1270년(원종 11년) 삼별초의 장수로 있을 때,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가 결정되자 배중손과 함께 이에 반대하여 서해 일대를 경략하면서 진도로 내려가, 그 곳을 거점으로 남해안 일대를 장악, 몽고와 고려에 완강히 저항하였다. 71년(원종 12년) 이를 토벌하고자 진도로 내려온 김방경, 원나라 장수 혼도, 흥다구 등 연합군에게 패전, 배중손이 전사하자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탐라(耽羅:제주도)로 들어가 성을 쌓고 재기를 노리면서 남해안 일대를 소란하게 하였다. 원나라와 고려에서 수십차 항복을 권하는 사람을 보냈으나, 끝내 말을 듣지 않아 73년(원종 14) 김방경, 혼도, 흥다구 등이 전함 160여 척을 거느리고 탐라를 정복하자 자살하였다.<sup>3)</sup>

(A)는 김통정이 참여했던 삼별초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고, (B)는 김통정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하면 삼별초의 활동과 김통정의 활동에 대한 윤곽은 드러난다.

이 두 기록을 종합하면 김통정은 배중손과 더불어 고려 정부와 몽고에 저항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김통정은 항몽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그가 원종이 이끄는 고려정부에 반기를 든 것은 그 당시의 고려 정부가 몽고의 괴뢰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민족 자주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왕족의 한 사람인 승화후 온(溫)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김통정의 생각이라기보다 배중손 등 김통정의

2) 韓祐祐, 『韓國通史』(을유문화사, 1970), 179~180쪽.

3) 『동아세계대백과사전』 6권(동아출판사, 1982), 440쪽.

상급자들의 생각이지만 김통정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항몽투쟁을 벌여 나갔다.

삼별초군이 강화도에서 저항하다가 패하게 되자 진도까지 밀려 내려오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김통정은 제주도로 옮겨와 투쟁을 계속한다. 제주도까지 쫓겨온 그가 성을 쌓고 남해안 일대를 소란하게 하였다는 것은 위의 기록에 나와 있다. 그러나 그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저항했느냐는 것은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다.

제주도사<sup>4)</sup>에 의하면 김통정은 원종 12년 제주도에 들어와 지금의 애월읍 고성에 성을 쌓고 항전을 계속하는 한편 남해안 연안지방이나 섬 지역에 침입하여 지방 관리나 몽고 병사를 살해하기도 하고 공물 운반선과 戰船을 약탈하거나 불태우기도 했다. 이것은 그들이 필요한 물자를 얻는 방편이기도 하고 여몽연합군의 해상작전을 막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고려 정부에서는 김통정을 토벌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원종 13년 3월에 금훈을 제주초유사로 삼아 김통정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김통정은 이를 거절한다. 이에 다시 고려 정부는 원종 13년 8월에 김통정의 조카인 낭장 김찬 등을 제주도에 보내어 김통정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김통정은 이것마저도 거절한다. 고려 정부와 몽고는 회유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1273년(원종 14년) 4월 고려 장군 김방경과 몽고 장수 혼도가 거느린 여몽 연합군이 선박 160척에 군사 1만여 명으로 토벌에 나섰고 결국 김통정은 패배하고 자살했다.

이런 기록들을 종합하면 김통정은 삼별초의 하급 장수다. 김통정이 제주도에서 저항할 때 고려 정부에서 김통정의 친척인 낭장 김찬을 보내어 회유하려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김통정 일가는 그 당시 피지배계급인 농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는 항몽정신이 강한 삼별초의 하급 장수로 배중손의 수하에 있기는 했지만 군사전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몽 연합군이 그를 토벌하기 위해 많은 선박과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에 나섰다는 것은 그것을 반증한다.

4) 고창석, “中世史”『濟州道誌』 제1권(1993), 734~744쪽 참조.

### 3. 전설에 나타난 김통정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수집되어 활자로 인쇄되어 나온 김통정 전설들은 다음 10편이다.

제보자	제보일자	분량	수록문헌
(A) 애월읍 고성리 강태연(남 64세)	1975. 8. 14	2백자원고지 20매	현용준, 『제주도전설』
(B) 제주시 용담2동 박승남	미상	2백자원고지 1매	동 상
(C) 제주상업고등학교 학생 전승규	1960. 1. 15	2백자원고지 2매	동 상
(D) 애월읍 고성리 김연(남)	1965. 1. 25	2백자원고지 1매	동 상
(E) 애월읍 애월리 박길순(남 80세)	1975. 7. 18	2백자원고지 1매	동 상
(F) 애월읍 광령리 고인훈 부친	1975. 2. 19	2백자원고지 1매	동 상
(G) 애월읍 고성리 강정(남 61세)	미상	2백자원고지 9매	제주도, 『제주도전설지』
(H) 애월읍 어음리 김승추(남 76세)	1984. 7. 18	2백자원고지 25매	김영돈 등, 『제주설화집성』
(I) 한림읍 옹포리 장덕기(남 76세)	1984. 9. 5	2백자원고지 5매	동 상
(J) 한경면 고산리 진용표	1957. 11	2백자원고지 5매	진성기, 『제주도전설』

이상 10편 가운데 어느 정도 敘事的 構造를 갖춘 전설은 (A), (G), (H) 3편이다. 그 전설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1) 고려 때 한 과부가 있었다. 밤마다 사내가 찾아와서 잠자리를 갈

이 하여, 그 결과 임신한다.

- 2) 과부는 남자의 신원을 알기 위해 그 남자가 찾아 왔을 때 남자의 몸에 실을 묶어 두고, 다음 날 실을 따라 가 보았다. 그리고 그 실이 지렁이 몸에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 밤마다 찾아와 동침을 한 남자는 인간으로 변신한 지렁이였던 것이다.
- 3) 과부는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온 몸에 비늘이 돋쳐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돋아 있었다. 아이는 자라면서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을 부렸다. 그래서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 4) 김통정은 성을 쌓은 후 제주도민들로부터, 재(灰)와 빗자루를 거두어 들였다. 그를 잡으러 오는 배들이 멀리 보이면 성 위에 재를 뿌리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달아 성 위를 달리게 했다. 말꼬리에 달린 빗자루는 재 먼지를 쓸어 냈고, 먼지가 뿌옇게 솟아오르자 침범해 오는 병사들은 앞을 볼 수 없어 물러나곤 했다.
- 5) 김방경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김통정은 성안으로 들어가 성을 굳게 닫고 저항했다. 그 때 업저지를 성밖에 둔 채 성을 닫아 버렸기 때문에 업저지는 서운했다.
- 6) 김방경은 업저지의 지혜를 빌어 성안으로 쳐들어갔고, 김통정은 깔고 앉았던 쇠방석을 수평선 멀리 던져 놓고 날아가 그 위에 앉았다. 김방경은 또 업저지의 지혜를 빌어 부하 장수를 새와 모기로 변케 해서 김통정 주위를 맴돌다가 그가 고개를 든 순간 비늘 사이가 벌어진 틈을 칼로 찢러 김통정의 목을 베었다.
- 7) 김통정은 죽어가면서 발로 바위를 쿵 밟아 움푹 패이게 되자, 거기서 샘이 솟았다.
- 8) 김방경은 토성 안으로 들어가 김통정의 처를 붙잡아다 임신여부를 물에 비추어 보고 임신했음을 알았다. 남겨 두면 후환이 있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죽였는데 매 새끼 아홉 마리가 나왔다.
- 9) 김통정의 처가 죽으면서 흘린 피로 그 일대가 벌겍게 되었는데, 그것이 '붉은 오름'이다.

- G) 1) 김통정은 고려 때 삼팔초 군대를 거느리고 진도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리고 향파두리에 성을 쌓았다.
- 2) 성을 쌓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렸고, 흉년이 들어 역군들이 굶주림에 허덕였다.
- 3) 김방경 장군이 김통정을 잡으러 왔으나 성을 굳게 닫아 잡을 수가 없었다.
- 4) 업저지의 지혜를 빌어 성안으로 쳐들어가자 김통정은 쇠방석을 비양도 앞 바다에 던져 그 위에 앉았다.
- 5) 김방경 장군은 도술을 부려 모기로 변신해서는 김통정 주변을 뱅뱅 돌다가 김통정이 고개를 든 사이 목을 찢러 죽였다.
- 6) 김통정 장군이 죽자 애첩과 딸이 서로 칼로 찢러 그 피가 그 일대에 흘러 오늘의 '홍붉은 오름'이 되었다.
- 7) 김통정은 그 동안 제주도민들을 고생시킨 대가로 물이나 먹으라며 발로 바위를 밟자 그 자리에 금방 샘물이 솟아올랐는데 그 물이 <장수물>이다.

H)는 수집자가 줄거리를 요약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대신 제시한다.

- 1) 옛날 중국 어느 왕이 밤에 달구경을 나왔다가 말울음 소리를 들었다. 알아 보니 그 울음 소리는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에 대신들에게 그 말을 잡아 오도록 하자, 김통정이 자진하여 나섰.
- 2) 제주에 상륙한 뒤 물장우리에서 그 말을 잡았고, 곧 백성들에게 포고하여 서울로 진상을 바치지 말게 했다. 대신 김통정에게 빗자루 세 개와 재(灰)만을 바치면 그만이었다.
- 3) 중국에서는 김통정이 배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김통정을 잡아오도록 여러 장수를 보냈다. 그러나 김통정은 재를 뿌리고 빗자루를 말꼬리에 매달아 먼지를 내면, 온 섬이 안개에 쌓여 상륙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 4) 드디어 중국에서는 신장(神將) 둘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몰래

상륙하는 데 성공했다. 뒤늦게 이를 안 김통정은 성문의 철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꼼짝도 않았다.

- 5) 신장들이 성안에 들어갈 수 없어 서성거리고 있으려니,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느 엽저지가 숲으로 성문을 녹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곧 철문을 녹이고 들어가니, 김통정은 관탈섬으로 날아가 버렸다. 신장들은 모기가 되어 쫓아갔다. 김통정의 귓가를 맴돌며 앵앵대자 김통정은 모기를 때려죽이려고 한 손을 들었다.
- 6) 이 때 김통정의 몸에 비늘이 들려지자, 다른 한 신장은 들려진 비늘 사이로 칼을 내리쳤다.<sup>5)</sup>

(A)와 (G)는 제보자가 같은 마을 출신이어서 그런지 내용이 비슷하다. 그런데 (G)는 김통정의 출생에 관한 부분이 없다. (H)는 김통정을 중국인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고 말[馬]을 등장시킨 것이 흥미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A)나 (G)와 대동소이하다. 서사구조로서 비교적 흥미가 있는 것은 (A)라고 할 수 있다.

(A)의 전설은 역사적 사실과 전승자들의 상상세계가 혼합돼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상상세계로 채워져 있다. 역사의 기록과 비교하면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허리가 점점 커 갔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고, 남편도 없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수군거렸다.

과부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문을 꼭꼭 잠그고 자노라면 어디로 들어오는지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잠을 자고 간다.”는 말을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다음 그 남자가 찾아 왔을 때 실로 그 몸을 묶어 두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과부는 실을 준비해 두었다. 이튿날 저녁에도 그 남자는 여전히 찾아 들어서 잠을 잤다. 과부는 나가는 남자의 허리에 몰래 실을 묶어 놓았다.

날이 새어 보니 실은 창문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 노돛돌[下馬石]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과부가 노돛돌을 들어보니 큰 지렁이가 한 마리 있는데, 실이 그 지렁이 허리에 감겨져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이 지렁이가 밤에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과부는 지렁이를 보니 우선 징그러운 생각

5) 『濟州說話集成(1)』(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31쪽.



부터 들었다. 오늘밤도 이 징그러운 지렁이가 다시 찾아오면 어찌하나 생각하고 지렁이를 죽여 버렸다.

그로부터 허리가 점점 커져서 과부는 옥동자를 하나 낳았다.<sup>6)</sup>

이 인용문은 역사의 기록에 없는 전승자들의 창작이다. 김통정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지렁이>와 과부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I)의 전설에는 김통정의 어머니가 처녀 때 밤만 되면 찾아오는 청의동자(靑衣童子)와 동침하고 김통정을 낳았다고 되어 있고, 청의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지네>라는 것이다. 그리고 (B)의 전설에는 김통정의 어머니가 중국 조정승의 딸이라고 되어 있다.

전승자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김통정의 출생이 정상적인 인간의 출생과는 다르다. 적어도 전승자들의 생각에는 김통정은 비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사실처럼 믿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지렁이+과부>, <지네+처녀>, <중국 조 정승의 딸+?>, 세 가지 이야기의 유형이 있지만 공통점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초능력을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아이는 온몸에 비늘이 돋쳐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자그마한 날개가 돌아나고 있었다.

과부는 이런 사실을 일체 숨기고 고이 아기를 길렀다. (중략)

김통정은 자라면서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道術)을 부렸다. 그래서 삼별초(三別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중략)

성문을 무너뜨리고 김방경 장군의 군사가 몰려들자, 김통정 장군은 깔고 앉은 쇠방석을 바다 위로 내던졌다. 쇠방석은 물마루(수평선) 위에 가 뗏다. 김통정 장군은 곧 날개를 벌려 쇠방석 위로 날아가 앉았다.(108~110쪽)

김통정은 온몸에 비늘이 돋아 있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 있으며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날짐승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김통정을 초인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을 부렸다는 것은 『홍길동전』 등 고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영웅의 신비화의 한 양상이다.

6) 玄容駿, 『濟州島傳説』(서문당, 1976), 107~108쪽. 이하 같은 작품은 쪽수만 밝힘.

김통정 장군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되 돈이나 쌀을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灰) 닳되와 빗자루 하나씩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재와 빗자루를 비축해 두었다가 토성 위를 뱅 돌아가며 재를 뿌렸다. 김통정은 외적이 수평선 쪽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말 꼬리에 빗자루를 달아매어 채찍을 놓고 성 위를 돌았다. 그러면 안개가 보얗게 끼어 올라, 적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곤 했었다.(중략)

김통정 장군을 죽인 김방경 장군은 곧 토성 안으로 달려 들어 김통정 장군의 처를 잡아냈다. 토성 안(지금의 붉은오름 뒤쪽)에는 약 3정보 가량 되는 평지가 있는데, 여기는 당시 물을 괴게 해서 김통정 장군이 뱃놀이하던 곳이었다. 이 물 위에 길마를 놓고 김통정 장군의 처를 끄집어다 그 위에 올려 앉혔다. 뱃속에 임신한 자식이 있는가를 물에 비쳐 알아보고 완전히 멸종시키기 위해서였다. 길마 위에 걸터 앉혀보니 물에는 뱃속의 아이 그림자가 어렸다. 죽여야 하는 것이다. 곧 밑으로 불을 붙여 태워 죽이니, 매 새끼 아홉 마리가 죽어 떨어졌다 한다. 날개가 돋친 김통정 장군의 자식이니 매 새끼로 임신된 것이다.(109~112쪽)

김통정은 초능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지혜와 전술도 뛰어났다고 인식하고 있다. 해상으로 쳐들어오는 적을 혼란시키기 위해 재를 뿌려 먼지를 일으켜 앞을 볼 수 없게 했다는 것은 김통정이 지혜와 전술이 뛰어났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김통정을 매에 가까운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통정의 처가 매새끼 아홉 마리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은 재미있는 발상이지만 전승자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믿고 유포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 4. 한국소설에 나타난 金通精

4-1. 박용구의 『삼별초』(1959)는 역사를 바탕으로 삼별초의 항쟁과 패배를 배중손, 김통정 등을 중심으로 서술한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김통정은 배중손의 부하 장수로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밀려 온 배중손 등 삼별초는 진도를 근거지로 옮긴다. 그리고 대궐을 쌓고, 성을 쌓아 저항한다.

삼별초들은 대궐을 이룩한 뒤에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높이가 오 척이며, 둘레

가 삼만팔천 여 척이나 되는 거대한 성을 만들어 는 것이다. 이 성을 용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강화에 있던 성보다는 오히려 든든하고 믿음직한 성이었다.

한편 삼별초들은 진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섬을 차례로 세력하에 넣기 시작하였다. 남해(南海), 거제(巨濟) 등은 물론이어나와, 멀리 제주도까지 세력하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특별히 김통정이 파견되었다.<sup>7)</sup>

역사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소설에서는 진도에 성을 쌓은 후 배중손이 김통정을 제주도로 파견하여 저항의 근거지를 마련토록 한다.

한편 김통정은 제주도에 도착하자, 아무 저항도 반응이 없이 이곳을 손아귀에 넣었다.

데리고 간 군졸들을 시켜서 있을 집을 마련하고 또 간단한 토성을 쌓으라고 명령하였다. 여기에 주둔할 군졸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군졸들을 거느리고 일단 보고차 진도로 돌아왔다.(128쪽)

제주도와 관련된 부분은 위 인용문이 고작이다. 삼별초가 완전히 패배하기 전에 김통정이 제주도에 파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을 쌓고 일부의 군졸들을 남겨 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史實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작가의 상상의 소산일 것이다.

진도에서 패하자 김통정 일행이 제주도로 향하는 대목에서 이 소설은 끝난다. 제주도에서 김통정이 어떻게 저항하다 패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 소설이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김통정은 고개를 돌려 먼 남쪽 바다를 바라다보았다.

“아직도 삼별초는 살아있다. 삼별초는 오랑캐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 제주도에 닿거든 거기에서 새로 출발하여 오랑캐를 이 나라 이 강산에서 물리칠 힘을 길러야만 한다.”

배들은 남쪽으로 달렸고, 진도는 까마득해졌다. 군졸들도 한결같이 남쪽 바다를 바라다볼 뿐 진도를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170쪽)

이 소설에서 김통정은 삼별초의 장수로 여몽연합군과 싸우다 제주도까지

7) 『한국문학전집 29』(민중서관, 1959), 122쪽. 이하 같은 작품은 쪽수만 밝힘.

밀려 내려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김통정이 여몽연합군과 싸운 것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다. 왕족 중에 한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몽고와 몽고에 협력한 고려정부에 대해서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으로 나와 있다.

비교적 史實에 근거해서 김통정을 그리고 있다. 그만큼 작가의 상상세계는 드러나지 않는다.

4-2. 김정한의 『삼별초』(1977)에는 김통정은 강화도의 연안 경비를 맡은 총 책임자로 나온다. 그는 배중손, 노영희, 유준혁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1270년 6월 3일, 배중손 장군을 우두머리로 한 삼별초 대군단은 그들이 세운 신왕 승화후 온을 모시고 드디어 강도를 떠났다. 그들로서는 그것이 결코 도망의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국을 기어코 자기들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몽고 승냥이들과, 또 그들의 앞잡이가 된 괴뢰정권을 상대로 계속 투쟁을 해나갈 결심으로 현재의 강도보다 더 안전한 근거지를 찾기 위해서였다.

정략상 하는 수 없이 잡은 벼슬아치들의 처지들은 하늘을 우러러 대성통곡을 했었지만, 구포(仇浦)에서 항파강(缸波江)까지 뺀 천 여척의 대선단은 자주 고려의 대행진이 아닐 수 없었다. 2보 전진을 위한 이 6·3의 의거는 진실로 조국 고려가 죽느냐, 자기들의 죽느냐 하는 그야말로 판가름의 선포였던 것이다.<sup>8)</sup>

이 인용문은 삼별초의 상층부를 이루는 배중손 등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삼별초의 항쟁은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켰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왕은 행복을 하더라도 백성들은 행복을 바라지 않으리라고 믿소. 삼별초는 이젠 왕이나 어떤 새로운 집권자의 사병이 아닌 백성들의 편이 될 거요. 만약 우리들까지 출륙을 해서 몽고군을 환영해 맞는다면 항몽 30년간 오랑캐와 싸워서 죽은 수십만 선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소.”(218쪽)

이 점이 역사의 기록과 시각을 달리한다. 그리고 박용구의 소설과도 다른

8) 김정한, 『삼별초』(시와사회사), 237쪽. 이하 같은 작품은 쪽수만 밝힘.

점이다. 김정한은 삼별초의 항쟁을 백성들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삼별초 사졸들의 이 같은 불평은 그것으로써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방 백성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처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갈수록 그들의 의분은 절로 부풀어올랐다. 경상도 지방 특히 금주·웅천·동평(동래)·울주 등지에 가 있는 삼별초들도 마찬가지였다. 각지의 정보가 서로 교환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평은 점점 한덩어리가 되어 갔다.

게다가 때마침 몽고의 일본 침략에 고려군을 앞장세우려는 엉큼스러운 의도가 차츰차츰 드러나기 시작하자, 삼별초의 반몽고, 반정부 정신은 급속도로 굳어져 갔다.(118쪽)

김통정의 활동은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백성의 편에 서서 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김통정의 제주에서의 활동은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소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장수들의 저항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고 백성들(민중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삼별초의 병사인 윤석중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삼별초의 투쟁을 바라보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4-3. 유현종의 『삼별초』(1980)는 거돌, 김통정, 강쇠 등을 노비 출신으로 설정했다. 역사의 기록에 장수로 나오는 김통정도 노비 출신으로 설정했다.

「三別抄」해산, 「出陸」 단행은 곧 항복을 의미했다. 항복에 반대 최후의 순간까지 抗爭을 다짐하고 난을 일으킨 것이 삼별초였다.

이들은 비록 삼십 여 년 동안 독재자로 군림한 崔씨 정권, 혹은 武臣의 사병(私兵)으로 그 주구 노릇을 해왔지만 난을 일으킨 뒤부터 진도, 탐라로 이어지는 투쟁의 연속적인 과정이 정작 순수한 民族自主의 불길로 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外勢에의 굴종을 반대하고 부패 무능한 당시의 지배층에 도전하여 민족의 얼을 지키며 지나간 고려의 榮光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끝내 산화하였다.

그 三別抄의 군사들은 거의가 억압받고 못살던 백성의 자식이거나 이 작품의 주인공처럼 노비출신들인 거돌, 김통정, 강쇠 같은 인물이었다는 데 더 큰 의의를 찾고 싶다.<sup>9)</sup>

이 소설의 특징은 김통정을 피지배층인 노비로 설정했다는 것, 같은 신분

9) 유현종, 『삼별초』(동아일보사, 1980), 358쪽.

인 거들, 강쇠 등과 함께 항몽 투쟁하는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맡으면서 서서히 지도자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서술돼 있다.

유현종은 고려시대 '억압받고 못 살던 백성' 곧 피지배층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 소설을 쓴 것이다.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족의 자존과 민족정기를 잃어가면서 현실에 타협하고 일신의 안일을 도모한 대신 백성들인 피지배층은 민족 자주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통정을 피지배층인 노비 출신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 5. 일본 소설에 나타난 김통정

일본의 작가 이노우에 야스시(井上 靖)의 소설 『風濤』(1963)에도 김통정과 김통정의 활약이 제시돼 있다. 한국소설들이 김통정과 삼별초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한 데 대하여 이 소설에는 일본 침공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고려 정부와 김방경의 시각과 처지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3월, 원종은 김방경과 상의하여 탐라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삼별초에 대해 초유하는 사신을 보냈다. 사신에는 함문부사 금훈이 뽑혔다. 삼별초는 전년의 진도 싸움에서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종으로부터의 초유가 의외로 주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이 이상 동족의 피로써 다투는 일은 피하고 싶었고, 다시 몽고병이 개입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해결해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개경을 떠났던 초유사 일행 30여 명 중, 금훈 한 사람만이 다음 4월말에 개경으로 돌아왔다. 사신 일행은 진도와 탐라도 사이의 해상에서 삼별초에게 잡히는 바가 되어 추자도에 구류되었다가 금훈 하나만이 썩은 조각배에 태워져서 해상에 뺨겨쳐졌다는 것이다. 초유문은 지금 삼별초의 수령이 되어 있는 김통정에 의해 접수되지 않아서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다.

금훈의 보고에 의하면 삼별초 병사들 사이에는 항복의 뜻은 전혀 안 보이고 자기들만이 조국 고려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며, 언젠가 불원한 장래에 몽고병을 이 나라에서 추방하여, 굶주리고 있는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해방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훈이 송환된 무렵부터 다시 삼별초의 행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연해

의 고을에서 들어오게 되었다. 삼별초는 탐라도의 한쪽에 내외의 성을 구축하고 해상을 횡행. 연해의 고을들을 차례차례 습격하여 선박, 미곡을 빼앗고, 다수의 주민까지 납치해서 그 세력은 날로 강해져가고 있었다. 삼별초는 차츰 명확히 해적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런 집단이 좋은 싫든간에 빠져야 하는 길을 삼별초도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sup>10)</sup>

역사의 기록 속에 드러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삼별초의 병사들이 기강을 잃고 약탈을 계속하는 海賊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패배가 계속되어 희망을 잃고 군량과 무기, 그리고 선박이 없어지자, 본능적인 해적 행위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여름의 마지막계에서부터 가을에 걸쳐, 삼별초의 도량은 격화돼 갔다. 전라도의 공미 8백석의 약탈, 충청도 고란도에 있는 조선소의 습격, 합포와 거제도의 병선의 소각. 이런 사건이 계속해 일어났다. 특히 고란도 조선소의 습격은 며칠에 걸쳐 행해져서 병선의 모두가 소각되고, 조선 기술자는 납치됐으며, 조선에 관계하던 벼슬아치, 목수 등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일은 원의 고려 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반항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 방비가 약한 고을을 침범하여 그 관리들을 잡고, 농어촌에서 약탈을 자행하는 점은, 완전한 해적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중략)

혼도, 흥다구, 김방경이 이끄는 육해군 1만은 나주 반남현으로부터 출발하여 바다를 건너 각기 탐라도에 상륙. 삼별초의 본거지인 탐라성을 포위했다. 그리하여 성은 떨어져 두목 김통정은 자살하고 그 휘하 삼별초 1천 3백 명은 나와서 항복했다. 이리하여 지원 7년 6월 이래, 4년간에 걸쳐 반항적 태도를 취했던, 원래의 강도 특경대 군인들의 반란은, 10년 4월 여기서 완전히 평정된 것이다.(95~97쪽)

제주도에 들어온 김통정군의 행적에 대해 역사의 기록에는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군량미 등이 필요한 군대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희망을 상실한 패잔병들의 기강이 어떠했을 것인가는 상상키 어렵지 않다. 게다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병사들의 행동이 도덕적이고 건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만큼 그 당시 제주도민은 수난을 당했을 것이다.

10) 『風濤』『현대세계문학전집』 6. (신구문화사, 1968). 93쪽. 이하 같은 작품은 쪽수만 밝힘.

이 소설에서는 몽고의 압력에 마지못해 삼별초를 토벌하고, 일본 원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김방경 등 고려 장군들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약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견디면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 할 수 없이 강한 나라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김방경 등 고려의 지도층을 긍정적인 대신 김통정 등 삼별초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고 있다.

## 6. 맺음 말

역사의 기록을 원점(原點)으로 두고 전설과 소설들의 차이, 그리고 소설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전설은 역사의 기록과 부합되는 부분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상상세계로 채워져 있다. 1) 김통정의 출생, 2) 김통정의 능력 등은 상상에 의해 꾸며져 있다. 이야기의 흥미를 위한 장치이지만 전근대인들의 상상세계가 드러난다. 대체로 전근대의 문학에서 영웅을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통정의 전설에도 예외가 아니다.

전설은 김통정이 제주에 건너가 여몽 연합군과 제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전투와 여몽 연합군이 제주에 상륙한 후의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소박한 대로 제주에서의 김통정의 활동을 서술하고 있다.

소설들은 김통정의 제주에서의 활동은 다루지 않았다. 김통정을 삼별초의 평범한 장수로 묘사하고 전설처럼 신비스런 인물이 아니다. 역사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리얼리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현실적 인물로 나온다. 그러면서도 소설에 접근하는 관점은 다르다.

박용구의 소설은 역사의 기록에 충실하면서 연대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역사의 기록처럼 삼별초의 활동을 장수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김정한의 소설은 삼별초의 항쟁을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들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유현종은 역사의 기록과는 다르게 김통정을 노비 출신으로 설정하고 노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일본 작가인 이노우에의 소설은 삼별초의 항쟁 전후의 고려의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몽고의 지배와 압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



보려는 고뇌에 찬 장수인 김방경 등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의 독립을 유지하려 애쓰는 노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활동이라는 암시를 던지고 있다. 따라서 삼별초의 항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김통정의 제주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소설들의 작가의 시각에는 제주에서의 김통정의 활동은 대수로운 것이 못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설과 소설이 크게 다른 점은 첫째, 전설이 김통정을 영웅화·신비화한 대신 소설들은 그를 평범한 장수로 다루었다는 점, 둘째, 전설이 제주에서의 김통정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룬 데 대해서 소설은 그것을 가볍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전설의 담당자인 전근대의 제주민들은 김통정을 대단한 인물로 보았고, 그의 활동을 큰 사건으로 본 대신 소설의 작가들인 제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김통정도 대수로운 장수가 아닐 뿐 아니라 제주에서의 활동을 가볍게 보고 있다. 이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일들이다. 과거에 제주도 사람들에게 큰 사건으로 여겨지는 이재수란이나 4·3사건 등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도 제주인과 외지인의 시각차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